



총회 사무국

J. 허버트 넬슨 목사

총회 정서기

장로교 형제 자매 여러분,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진행됨에 따라 대통령은 "성지"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오랜 투쟁을 종식시킨 것에 관해 "세기의 거래"를 발표함으로써 화제를 바꾸려 했던 것 같습니다. 이 "거래"는 수십 년 동안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점령 하에 있게 했던 조건들을 냉소적으로 반복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의 땅을 터무니 없이 훔치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으며, 심지어 팔레스타인 국가에 할당된 지역에도 이스라엘의 군사 통치를 계속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팔레스타인 공동체의 이익을 포함하려는 진정한 의지의 증거가 부족합니다.

과거 장로교 총회의 관점에서 볼 때에 이 계획은 "성지"의 평화를 위해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에 대한 절대적 위반입니다. 국제사회가 팔레스타인의 영토로 인정한 땅에 대한 이스라엘의 침해를 우리 교회는 일관되게 비난해 왔습니다. 이스라엘은 불법 정착지 건설과 요단강 서안 전역의 팔레스타인 땅을 군사적으로 점령하는 과정에서 이 땅의 막대한 면적을 몰수했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행정부는 예루살렘의 신성한 도시를 이스라엘의 유일하고 분단 되지 않은 수도로 선포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뜻을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사관을 이전시켰습니다. 기독교인들과 이슬람 교도들에게 이 도시의 깊은 종교적 중요성에 대한 역사적인 주장은 무시되거나 손상되었고, 그렇지 않다면 이러한 일방적 행위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우리는 장로교 공동체를 대표하여 대대로 이 땅에 살아온 주민들을 대변해야 합니다. 그들의 땅은 도둑맞았습니다. 그들의 성지는 폄하 되었습니다. 그들의 집과 사업은 파괴되었고 그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계속되는 군사 점령의 철권 아래 살고 있습니다. 이는 제안된 "거래"에 따라 바뀌지 않습니다. 이 "성지"에 우리 자신의 뿌리를 염려하는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현재의 이스라엘 지도부와 우리 대통령의 노력 아래 일종의 사회 및 종교적 "인종 청소"가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고뇌와 분노로 외칩니다.

현재 진행 중인 팔레스타인 영토의 불법 점거와 이스라엘과 그 군부에 의한 팔레스타인 공동체에 대한 엄격한 통제가 미칠 영향에 대한 깊은 모순 중 하나는 우리가 혐오하는 유럽과 미국의 증가하는 반유대주의적 사상의 가능성입니다. 더 많은 폭력은 제안된 것과 같은 "거래"의 피할 수 없는 결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유대인 사회는 억압이 지속되는 비극을 누구보다 잘 이해해야 합니다.

저는 성지에서의 평화를 갈망하는 모든 장로교인들에게 우리 대통령에게 더 나은 "거래"를 요구할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이스라엘의 땅"이 단지 유대인 공동체의 구성원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해 정의가 행해질 때까지 결코 평화롭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운 일"이라는 부르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정치인들이 우리의 유대인 자매와 형제들 뿐만 아니라 무슬림, 기독교인, 그리고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거나 종교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 공평한 미래를 위해 일할 것을 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누는 믿음 안에서,



J. 허버트 넬슨 목사
총회 정서기
미국장로교